

운전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자칫 안전사고도 불러올 수 있다.

■ 연료를 아끼려면 에어컨을 약하게 튼다.

차량 에어컨은 운전을 시작하고 2~3분이 지난 뒤에 시속 25마일 이상 속도에서 켜는 것이 좋다. 에어컨은 처음부터 최고 성능으로 틀고 냉기가 차 안에 퍼지면 약하게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면 연료를 10~15% 정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를 절약한다는 생각에 에어컨을 작동하는 대신 차창을 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실험 결과 배기량 2,000cc 차를 시속 50마일로 운전할 경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약하게 켜면 평소보다 6% 정도 연료가 더 든다. 하지만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달려도 강력한 공기저항 때문에 연료가 5%가량 더 소모된다.

■ 에어백은 모든 충돌사고에서 작동한다.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시속 약 20마일 이상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 작동된다. 그러나 ●후방충돌 ●측면충돌 ●차량 전복 ●전봇대 등 일부분 충돌 ●앞차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고 등에서는 대개 작동하지 않는다. 안전벨트보다 더 믿을 만한 안전장치는 없다.



■ 광폭타이어를 장착하면 더 안전하다.

광폭타이어는 일반 도로에서의 코너링, 주행 안전성, 제동력 등은 좋지만 빗길에서는 노면에 닿는 면적이 넓어 '수막현상' (물로 인해 얇은 막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시속 45마일 이상에서는 주행 안전성과 제동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또 타이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엔진출력과 승차감, 조향성 등도 다소 떨어지고 연료 소모도 많아진다. 결론적으로 최초 자동차 출고 때의 타이어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타이어가 닳아 교체를 할 때에도 먼저 것과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 ABS 브레이크는 제동거리를 줄여준다.

ABS(Anti-lock Brake System)는 제동 때 각 바퀴에 장착된 센서들이 상태를 감지해 컴퓨터에 정보를 보내고 운전자가 밝은 힘을 끌고루 분산 조절함으로써 미끄러짐을 억제하고 직진성과 조향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전자제어 브레이크 장치다. 하지만 ABS는 기본적으로 제동거리를 짧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제동 때의 직진성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추돌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기본 기능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ABS에 대한 과신은 절대 금물이다. 눈길·빗길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에서 속도를 낮추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차분히 운전하는 것 이상의 안전장치는 없다. 비슷하게 4륜 구동 차량이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상식이다. 4륜 구동차는 산악지대나 사막에서의 주행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바퀴 모두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약천후에서의 제동력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 자동변속차량 주차 때 핸드브레이크를 채운다

변속레버가 '주차(P)' 위치에 있으면 변속기 내부의 기계적인 작동으로 기어가 풀리지 않아 더 이상의 안전장치는 필요 없다. 추운 날에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드럼, 라이닝 등이 얼어붙을 수 있으므로 안 채우는 게 좋다.



■ 새 차에 코팅광택하면 도장 수명이 오래간다

광택을 내는 것은 도장 표면을 미세하게 벗기는 작업이다. 출고 후 3개월까지는 미미하게나마 도장 면의 건조가 지속되므로 이때 광택 작업을 해선 안 된다. 1년 뒤 썸 찌든 때를 벗겨낼 때 광택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신차일 때에는 세차 후 왁스칠을 해주는 게 도장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다.



■ 추운 날에는 공회전을 오래 해야 한다

요즘 차량은 전자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최적의 연료량과 점화 시기에 따라 시동이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1분, 겨울에는 2분 정도면 충분하다. 과도한 공회전은 기름을 낭비하고 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엔진오일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겨울철 차량 부품들이 냉각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자마자 가속페달을 밟으면 기계 작동에 무리를 주고 비정상적인 엔진소리가 날 수 있다.



■ 배터리는 한번 방전되면 못 쓴다

배터리는 반영구적인 부품이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수명은 크게 떨어지지만 7.5v 정도의 기본 잔류전압만 유지되면 재충전으로 정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최소 2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자동차 배터리는 잦은 방전에 주의하고 배터리액의 수위를 정상으로 유지한다면 이보다 훨씬 오래 쓸 수 있다. 방전됐더라도 나중에 배터리가 제 기능을 낸다면 굳이 배터리를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